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유지현 · 박부진* · 한명숙**

상명대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교수, *명지대 교양학부 조교수

An Interpretative Theory of Symbolic Meaning Described in Novels as Texts and Its Application

Ji-Hun Yu, Boo-Jin Park* and Myung-Sook Han**

* Assistant Professor, Myungji University

Instructor, **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복식 연구를 위한 텍스트로서의
소설

2. 이성만의 통보모델

3. 의미유형분류

4. '다의성(모호성)'이론과 '지배적
상징'이론

5. Whitehead의 2중적 상징지표

III. 상징의 의미 분석 틀

IV. 소설에 나타난 의례복식의 의미
분석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 'TEXT' is a basic unit of culture. It is also the whole of culture organization which is generalizing a culture.

Literary texts which are reflection of the culture could be understood as a historical discourse.

This thesis which is based on the 'Semiotic theory', 'Victor Turner's 'Performance

theory', and Sung Man Lee's 'Information Model', classified the type of meaning to explain how to communicate the meaning of things which were described in novels, for examples, background, dress, dialogue, era, etc.

An interpreter (reader) should understand the culture described in novels to clarify the ambiguous significance.

An interpretative theory of symbolic meaning described in text was presented in this thesis, and it was applied to analysis Myung Hee Choi's novel, 'Honbul'.

I. 서론

텍스트는 문화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문화를 총괄하는 문화조직의 총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동보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Belsey는 문학텍스트는 다른 문학 텍스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씌어진 시대의 모든 지식, 그리고 당대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언술에 의존한다¹⁾고 하였으며, 이봉채는 소설은 작가의 기질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특이성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²⁾고 하였다. 이처럼 한 시대 한 문화의 담론에서 생산된 소설은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류, 사회, 역사를 근거로한 복식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텍스트로서의 소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작가와 텍스트(배경, rhetorics 포함) 그리고 독자 사이의 소통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그 소설의 특성이나 시대적 현상은 물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는데는 불충분한 이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으로 연관되고 완결된 언어기호들의 연속체³⁾인 소설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에는 내용외에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 저자의 경험, 사상, 사조를 전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상징의 의미를 해석학적 맥락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승모는 의미분석을 통해서 인지적이고 이념적인 내적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의례적 또는 상징적 관점이 요구된다⁴⁾고 하였으며, Greetz는 의미는 상징에 나타나 있고 이 상징을 통해 인간들 간에는 의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⁵⁾.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의 의미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Turner외의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다의성(모호성)”이론과 그의 상징의 양극 현상중 “지배적 상징이론”, Whitehead의 “2중적 상징지표” 등 인류학이론과 언어학에 있어서 Leech의 의미유형 분류와 이성만의 “동보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최명희의 장편 소설 <혼불>에 나타난 의례복식에 적용시켜 보았다.

1) Catherine Belsey, "Literature, History, Politics," in *Modern Criticism and Theory*, ed. David Lodge (London: Longman, 1988), p. 407.

2) 이봉채, 소설 구조론, 새문사, 1984, p. 131.

3) 이운마, 텍스트 종류로서의 가상 동보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 텍스트 언어학 1, 텍스트 연구회편, 1993, p. 461.

4) 정승모,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식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 논문집 5, 1979, p. 49.

5) Greetz, Clifford,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in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1-44, ed. M. Banton. Association of Social Anthropologists Monographs 3. London: Tavistock, 1966, p. 3.

II. 이론적 배경

1. 복식 연구를 위한 텍스트로서의 소설

텍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원문, 본문, 주제, 화제 등이며, “연결”(verbindung), “관련”(zusammenhang)이란 의미인 라틴어 “textus”에서 유래되었다⁶⁾.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세상의 모든 것 즉, 문화적 가공물, 모든 사건, 사회자체, 세상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로 보았다. 즉, Berger는 텍스트를 이야기체에 들어 있는 기호들의 체계적 모음⁷⁾이라 하였으며, Barthes는 텍스트를 의미성의 생산으로 이해하면서 텍스트란 문화의 수없이 많은 중심들로부터 도출된 인용의 조각⁸⁾이라 하였고, Rosenau는 텍스트를 모든 사건⁹⁾으로 보았다. 김경용은 텍스트는 저자와 독자(해석자)가 만나는 기호론적 담본의 장으로 그것이 제시하는 기호체들은 어떤 문화적 의미성을 나름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능한 의미들의 창출을 해석자에게 맡겨놓고 있는, 비결정성의 의미의 장 혹은 모든 가능한 의미 창출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해석에 대한 초대 같은 것¹⁰⁾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간점에서 내린 정의로서 현대사회의 모호적인 경향이 반영된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텍스트는 역사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 따라 인간적인 상호작용 상태에서 생겨났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형식으로 파악되는 텍스트는 연행자(작가)와 연행관객(독자)의 화용능력, 전달되는 수단(글말), 텍스트 내적인 언어구조(문체), 또는 외형적인 요소들에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복합체이며, 문화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문화를 총괄하는 문화조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분석은 바로 텍스트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 시대 한 문화 담본에서 생산된 소설은 문화의 산물인 복식을 연구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복은 ‘물질문화’의 한 단면이므로 사회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복 소설에는 의복 그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시대의 사회풍조, 생활풍습이나 의례, 가치관을 비롯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의복행동 및 유행에 관한 어떤 증거가 분명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이성만의 통보모델

이성만은¹¹⁾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텍스트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통보참가자의 지식을 통해서 텍스트는 다시 통보적 기능 또는 의의를 가진 기호와 언어행위가 된다. 텍스트의 통보적 기능은 숨겨진 저자의 의도이자 텍스트 구성적 행위모형으로서 독자의 지식을 바

6) 이은미, 전제서, p. 461.

7) Berger, Arthur Asa(1982). *Signs in Contemporary Culture*, Salem, Wisconsin: Sheffield Publishing Company, 1989, p. 115.

8) Barthes, Roland, *Image-Music-Text*(trans. Stephen Heath), N. Y. : The Noonday Press, 1977, p. 126,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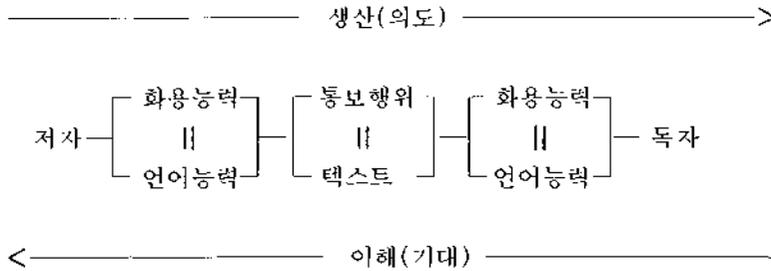
9) Rosenau, Pauline Marie,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 Inroads, and Instructions*, Princeton, N. J. : Princeton Uni. Press, 1992, p. 26.

10)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 174.

11) 이성만, 텍스트구조의 이해, 텍스트 언어학 1, p. 12.

당으로 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은 이성만의 통보모델의 일부이다.



<그림 1> 통보모델

위의 모델에서 이해과정의 구성 성분으로는 이해능력 또는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언어능력 (문법 및 어휘능력)과 화용능력(세상지식과 행위지식), 저자, 독자, 주제/대상, 상황, 의도/기능, 기대가 있다. 저자는 상황과 독자의 기대지평을 고려하여 화용능력의 도움으로 통보행위를 언어적으로 실현시킨다. 이렇게 실현되어 나타난 생산물이 텍스트인데 독자는 역으로 이 텍스트를 언어능력의 도움으로 분석하여 동시에 화용능력과 상황의 도움으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된다. 물론 이때 독자의 텍스트 이해는 저자의 통보행위(저자의도)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만은 이를 발화효과적 기능의 두가지 상이성(의도된 효과와 도달된 효과)¹²⁾이라고 하였다.

3. 의미유형 분류

페트로프스키는 '의미는 주위 세계의 인지를 매개하는 즉, 인지활동과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요소인 sign의 語義的 측면으로서 의미 체계는 인간의 삶을 통하여 발전하고 풍부해진다'¹³⁾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리치(G. N. Leech), 나이다(E. A. Nida), 크루스(D. A. Cruse)등 여러 학자들이 의미의 층위분류를 하였다. 그 중 Leech는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 주제적 의미, 언어적 의미, 내포적 의미, 반영적 의미, 정서적 의미, 사회적 의미 등 7가지¹⁴⁾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일부를 수정하여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1)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보편적인 의미로써 외연적 의미 또는 인지적 의미라고도 하는 객관적 의미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요소를 이룬다. 소설에 묘사된 복식에서의 개념적 의미로는 성별, 연령, 국적 등이 포함된다.

12) 이성만, 언어화용론의 행위이론적 전통과 발전, 인문논총 6집 (배계대), 1992, p. 133.

13) A. V. Petrovsky의 10인, Psychology, 김정택 역 (사상사, 1993), p. 152.

14) 홍사만, 국어 어휘 의미 연구, 학문사, 1985, pp. 264-88.

(2)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

어떤 사물이나 글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이 나타나는 의미로서 내포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 의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처럼 개방적이다. 즉, 주관적 의미의 차원이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의성의 차원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개념적 의미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연상적 의미이다.

(3)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

어떤 언어표현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전달하는 의미를 말한다. 한 텍스트의 사회적 의미는 동일 언어권내의 분체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dimension)과 층위(level)을 인식함으로써 해석된다. 즉, 등장인물의 대화나 복식의 묘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역적, 사회적 신분, 시대, 역할 등을 알 수 있다.

(4) 심리적 의미(Psychological meaning)

텍스트에 나타난 배경, 등장인물의 대화, 복식묘사 등 연행자의 화용능력 즉, rhetorics에 따라 연행관객이 읽어내는 심리적 상황으로서 성격, 가치관, 태도, 취향, 기분, 고정관념 등이 포함된다.

4. “다의성(모호성)”이론과 “지배적 상징”이론

상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된 의미는 행위자들의 내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 이들의 사회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회관계의 표현은 행위자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단지 표현된 결과에 대한 상징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기도 한다¹⁵⁾.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상징(uncomprehended symbol)’¹⁶⁾에 대하여 Nadel이나 Wilson 등의 학자는 이것으로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반해, Turner는 행위자는 이에 대한 해석을 낼 수 없지만 관찰자는 가능하다는 견해이다¹⁷⁾.

그는 행위자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과는 부관할 수도 있는 상징의 의미를 두 가지 각도에서 찾아내고 있다. 첫째는 상징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이고, 둘째는 상징의 위치가 갖는 의미이다. 이러한 Turner의 의미분석 방법은 의미를 용도로 보는 언어학의 의미론과도 통하며, 해석학의 ‘역동적인 의미(sinn)’¹⁸⁾와도 상통한다. 또한 그는 의미를 토착민의 해석으로부터 유래된 ‘해석적 의미(exgetical meaning)’,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징을 관찰해서 얻은 ‘조작적 의미(operational meaning)’, 유형화된 전체로부터 다른 상징과의 관

15) 정승모, 전제서, p. 50.

16) Nadel S. F., *Nupe Religion*. London: Routledge & Kagan Paul, 1954, p. 108.

17) Turner (paper 1970),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Cornell Uni. Press, 1967, pp. 26-27.

18) 해석학 맥락에서 ‘의미’는 두 차원이야; 하나는 구조적이고 정제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에 따라 역동적인 의미이다.

련에서 얻은 ‘위치적 의미(positional meaning)’로 분류함으로써 하나의 상징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혹은 동일한 맥락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다의성” 또는 “모호성”이라 불렀다¹⁹⁾. 그가 또한 ‘지배적 상징(dominant symbol)’의 ‘관념적 극(ideological pole)’과 ‘감각적 극(sensory pole)²⁰⁾’을 강조한 것은 상징을 사회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 한 것이다. Kaiser는 ‘모호한’ 상징이란 그들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각자에게 혼돈을 주는 상징이라 정의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상호작용하는 개인은 상호작용의 과정 중 의미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함께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²¹⁾. Miller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근본은 공유된 의미를 전제로 하지만, 참여자간에는 의미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상징은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grey area)을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징행위자는 관념적인 것보다는 규범적인 행위의 근거를 두게 된다고 하였다²²⁾. 한명숙 역시 의미분석에 있어서의 모호성을 $I \rightarrow I-x$, $I \rightarrow (I-x) + i$ 로 나타냈으며, 화자(착장자)와 청자(관찰자)의 공유량은 $I-x$ 이며, x 의 양이 최소일수록 가장 성공적인 의사전달이라고 하였다²³⁾.

Kaiser, Nagasawa와 Hutton에 의하면 포스트모던니즘의 조건은 증가하는 문화적 양면성을 생성하였으며, 자유시장체제 안에서의 의복스타일은 하나의 폭넓은 다양성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그 의복스타일은 문화적 양면성에 대한 출현과 개인들이 구성해 낸 외모 스타일 안에서 상징적 모호성으로 기여한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상징이 다의적, 모호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포스트모던 문화적 맥락으로 개성 추구와 패션의 세계화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의복상징의 의미는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전후상황과 참여자의 정체감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자민족 중심적(자기 중심적) 견해를 배제하므로 상징에 관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관찰자가 의복을 통해 상징화된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5. Whitehead의 “2중적 상징지표”

2중적 상징지표(double symbolic reference)란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화자(話者)는 사물에 서 단어로서의 이행과정을 담당하고 청자(聽者)측에서는 이의 반대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²⁵⁾. 이를 <그림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지표에서와 같이 상징에서 의미로의 진행과정은 연행관객에게서 나타나며 연행

19) Raymond Firth, *Symbols, Public and Private*, p. 189.

20) ‘관념적극’은 사회실체와 도덕의 원리, ‘감각적극’은 생리적 질서의 욕망과 감정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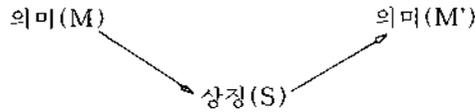
21)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 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 209.

22) Miller, E. S., *Shamans, Power Symbols and Change in Argentine Toba Culture*, in *American Ethnologist* Vol. 2, No. 3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p. 477.

23)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 27.

24) 강해원, 의상사회 심리학, 1995, p. 144.

25) Whitehead, Alfred, *Symbolism*, N. Y. : G. P. Putnam's Sons, 1927, p. 12.



<그림 2> 2중적 상징지표

자가 보여주고 들리준 상징에서 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들인다. 이 과정은 경험적이고 구체화된 상징에서 추상적 의미를 찾는 것이므로 추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상징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상징에서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반대되며 또 선행된다. 이 과정은 연행자에게 해당되는 과정이다.

Ⅲ 상징의 의미 분석 틀

Kaiser는 ‘반독하기 위한’ 의복개념과 의복의 심미적 상징성 해석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사의 영향으로부터 착용자와 함께 공동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판단자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였다²⁶⁾. 이것이 곧, 연행관객의 화용능력이며 연행자와 연행관객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이 일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상징의 다의성(모호성)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지배적 상징이론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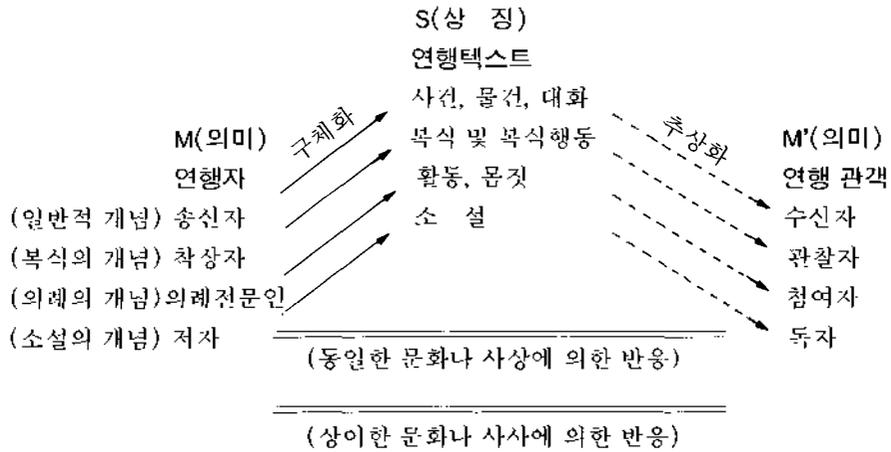
이상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상징의 의미분석 틀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틀에서 연행자, 연행텍스트, 연행관객 사이의 의미 전달과정을 일반적 개념, 복식의 개념, 의례의 개념, 소설의 개념으로 각각 본다면, 일반적 개념에 있어서 연행자인 송신자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M)를 사건이나 물건, 대화를 통해서 상징화하여 연행텍스트로 나타내면 연행관객인 수신자는 그 상징으로부터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복식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없이 많은 복식중 착용자가 어떤 의복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자신의 취향(의도)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며, 이때 그가 착용한 복식의 색상, 형태, 실루엣, 재질과 그의 복식행동에 따라 상징화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이루어진 상징을 관찰자는 복식의 여러 요소나 그의 복식 행동으로부터 객관적 의미 또는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연행자에서 연행텍스트로의 과정은 구체화 과정이라 한다면 연행텍스트에서 연행관객으로의 과정은 추상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전달 과정은 의례의 개념과 소설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연행자가 의도한 의미(M)와 연행관객이 해석한 의미(M')사이엔 민족적 배경이라든가 개인적 배경에 따라서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연행자와 연행관객은 모두 상징행위에 대한 규범적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연행자가 나타내는 의미 중에는 연행관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때로는 연행자의 의미보다 더 많은 내포적 의미를 연행관객이 읽어낼 수

26) Susan B. Kaiser, 진계서, p.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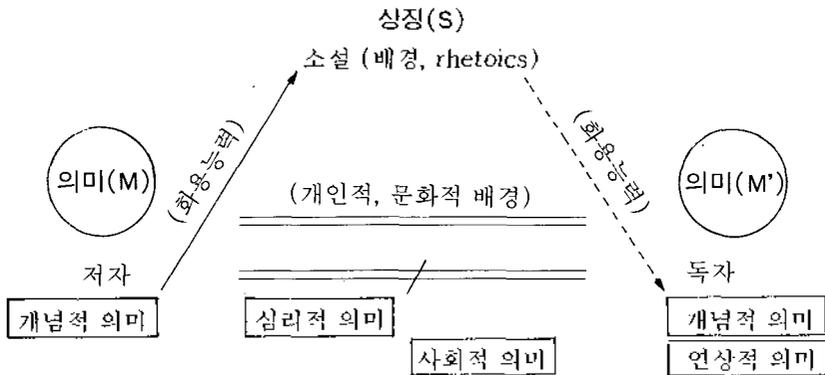
<그림 3> 상징의 의미분석 틀

도 있는 것이다.

<그림 4>는 위의 상징의 의미분석 틀의 일부인 소설적 개념에서의 의미분석 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연행텍스트로서의 소설에 있어서 저자와 독자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텍스트인 소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텍스트의 통보적 기능은 숨겨진 저자의 의도이자 텍스트 구성적 행위모형으로서, 독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

이 틀에 의한 의미분석 방법은 일종의 연역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저자가 의사전달의 중심요소인 개념적 의미를 소설에 그의 의도에 따라 어순을 바꾸거나 초점과 강조 등의 rhetorics를 통해서 표현하면 이를 독자가 개념적 의미와 그 밖의 다의적 의미를 연출할 수 있는 연상



<그림 4>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틀

적 의미로 파악하게 된다. 이때 저자의 의미가 독자의 의미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저자와 독자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그리고 동일한 지적, 정서적, 경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상징의 의미분석은 일치하여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자와 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 이는 독자의 화용능력과 소설의 사회적 의미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행텍스트인 소설의 배경과 rhetorics는 상징의 의미분석에 있어서 무시 못할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배경의 요소는 소설의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의 장소, 행위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인물들의 생활양식과 인습, 등장인물들의 종교적, 도덕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환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S. Langer는 상징과 지시물 사이에 논리구조의 공식적 일치와 공통의 논리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상징은 직유, 은유 표상(emblem), 이미지, 봉유와 관련이 있다²⁷⁾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설의 rhetorics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행자(저자)는 연행관객(독자)보다 상징의 의미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연행관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신비적인 의미 세계를 전문적 지식(화용능력)에 따라 상징화 한다. 이것을 일반적 개념의 커뮤니케이션 각도에서 보면 동일한 상징에 대해 송신자와 수신자가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연상적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김경용, 이성만, 한명숙, Kaiser, Turner, Miller가 주장한 상징의 모호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상징의 의미분석 목적은 현실세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현대 사회는 의미의 동일성보다 다의성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개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사회이므로 상징의 해석은 그 어느 때보다 다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김경용은 포스트모던 텍스트는 독자와 만나는 담론적 장이며,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의한 무한한 해석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하였다. 즉, 텍스트를 풀이하는데 어떤 주어진 방법이나 특별히 선호되는 해석범이란 있을 수 없고 텍스트는 다만 다중 의미체로서 무한한 방법의 해석을 청하고 있다²⁸⁾고 하였다. 이처럼 의미작용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주관적 과정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의미작용이 집단화 되어야 되며, 이 집단적 의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관습화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최고로 높이려면 연행관객이 연행자의 능력과 연행텍스트의 배경(행위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대, 인물들의 생활양식, 인습, 종교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IV. 소설에 나타난 의례복식의 의미 분석 예

의례복식은 상징의 의미에 있어서 어떤 다른 복식보다 객관적, 외형적 의미인 개념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복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텍스트의 배경, rhetorics 그리고 독자의 화용능력에 따라 상징이 전달하는 의미의 양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본인이 후속 연구중에 있는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의 일부를 한 예로 들어본다.

27) Raymond Firty, 전제서, pp. 70-74.

28) 김경용, 전제서, p. 142.

- 1)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다홍 비단 바탕에 불결이 노닐고 바위가 우뚝하며, 그 바위 틈에서 가웃 고개를 내민 불로초, 그리고 그 위를 어미 봉과 새끼 봉들이 어우러져 나는데 연꽃, 모란꽃이 혹은 수줍게 혹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신부의 활옷은, 그 소매부리가 청, 홍, 황으로 끝둥이 달려 있어서 보는 이를 휘황하게 하였다.
- 2) 신부는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 재배하고 일어선다. 한삼에 가리워졌던 얼굴이 드러나자, 흰 이마의 한가운데 곤지의 선명한 붉은 빛이 매화잠의 푸른 청옥잠두와 그 빛깔이 부딪치면서 그녀의 얼굴을 차갑고 단단하게 비쳐 주었다.

(혼불 1권, 15쪽)

위의 예문 1)에서는 신부의 수줍음과 신비스러움을 은유로 나타내고 있으며, 신부복의 휘황찬란함을 개념적 의미로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활옷에 물, 바위, 불로초, 봉, 연꽃, 모란꽃 등을 직유로 표현하면서 신부복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그들로부터 활옷의 화려함 외에 수많은 주술성을 포함한 연상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의미해석이 가능한가는 바로 독자의 화용능력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표 1>

혼불	개념적 의미	심리적 의미	배경 (시대, 신분, 지역) 사회적 의미	독자 (화용능력) 연상적 의미	
1)	활 옷	수줍음 휘황함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 바위 : 불로초 : 연꽃 : 모란꽃 : 청, 홍, 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례 신비스러움 탄생, 여성원리... 영속, 안정 영생 모든 존재의 근원 남성상징(陽) 음양오행사상
2)	신부의 행동 과 모습(패백)	아름다움 긴장감	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림 : 곤지의 붉은 색 : 매화잠의 푸른 청옥잠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너른바지, 단 속곳, 무지기, 대습 치마, 부피감 잡귀를 쫓음, 아름다움, 신부의 긴장감

예문 2)에서는 신부의 행동과 모습의 개념적 의미를 은유와 대조로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독자는 그의 화용능력에 따라서 상징의 의미분석을 하게 된다. 즉,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라는 문장으로부터 만약 저자가 복식에 관한 많은 지식의 소유자라면 다홍치마 속에 나리속곳, 속속곳, 바지, 너른바지, 단속곳, 무지가, 대습치마로 인한 부피감을 연상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는 그 중의 일부분만 또는 전혀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곤지의 선명한 붉은 빛과 배화잠의 푸른 청옥잠두름 대조법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독자는 자신의 화용능력에 따라 곤지에 함축되어 있는 주술적 의미로 분석하기도 하고, 한국고유의 아름다움 등의 심미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으며, 신부의 불안하고 긴장된 심리상태를 읽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예문 1)과 2)에서는 소설의 사회적 의미해석으로 주인공의 신분이 양반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문장에서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사회에 있어서의 텍스트는 무한한 해석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상징에 나타난 바람직한 의미분석 즉,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려면, 저자는 저자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특정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또 그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의미분석 방법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V. 결 론

텍스트는 문화의 기본 단위인 동시에 문화를 총괄하는 문화조직의 총체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저자와 독자)에서 동보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하므로 소설텍스트는 인류, 사회,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의 산물인 복식의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으며,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은 개념적, 심리적, 사회적, 연상적 의미로 연역적인 방법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나타난 여러 의미는 저자와 독자의 민족적,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곧 Turner와 여러 학자의 '다의성(모호성)이론'과 일치하는 바이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념적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연상적 의미(내포적 의미 포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텍스트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할 때는 소설의 상황, 배경(소설의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의 장소, 행위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인물들의 생활양식과 인습, 등장인물들의 종교적, 도덕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환경 등), rhetorics(수사법), 저자의 화용능력(세상지식, 행위지식)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서 상징에 대한 의미분석의 복적인 저자와 독자간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텍스트에 나타난 현실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모든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적 의미분석 틀로서 적용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겠으나, 복식에 관한 서술이 특히 부족한 한국 소설을 텍스트로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시론으로써 그 의의를 갖고 싶다.

참고문헌

1.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95.
2.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3. 김희선,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4. 신현숙,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 한신문화사, 1986.
5. 이은미, “텍스트 종류로서의 기상 통보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I」, 텍스트연구회편, 서광학술자료사, 1993.
6. 이은주, “의례복식의 상징작용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1995.
7. 이유경,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3.
8. 이새일, 박춘순, “우리나라 기녀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복식」, 제24호, 한국복식학회, 1994.
9. 임지룡,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1992.
10. 장일구, “소설텍스트의 연행 해석학 시론”.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2.
11. 정승모,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장에 관한 일 연구”, 「인류학논문집」 5, 1979.
12. 최병희, 「혼불 I」, 한길사, 1990-93.
13.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14. Barthes, Roland. *Image-Music-Text*(trans. Stephen Heath), N. Y. : The Noonday Press, 1977.
15. Belsey, Datherine. *Literature, History, Politics*, in *Modern Criticism and Theory*, ed. David Lodge. London: Longman, 1988.
16. Berger, Arthur Asa(1982). *Signs in Contemporary Culture*. Salem, Wisconsin : Sheffield Publishing Company, 1989.
17. Greetz, Clifford.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in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1-44*. ed. M. Banton, Association of Social Anthropologists Monographs, 3. London: Tavistock, 1966.
18. Kaiser, Susan.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19. Leech, Geoffrey. *Semantics and Society*. London: Penguin Books, 1975.
20. Miller, E. S. *Shamans, Power Symbols, and Change in Argentine Toba Culture*, in *American Ethnologist* Vol. 2, No. 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1. Nadel, S. F. *Nupe Religion*. London: Routledge & Kagan Paul, 1954.
22. Petrovsky외 10인. *Psychology*. 김정택역, 인간행동의 심리학, 사상사, 1993.

23. Raymond Firth. *Symbols. Public and Private*(Ithaca: Cornell Uni. Press), 1973. Ro
senau, Pauline Marie.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 Inroads
and Instructions*. Princeton, N. J. : Princeton Uni. Press, 1992.
24. Turner.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Cornell Uni. Press, 1967.
25. Whitehead, Alfred. *Symbolism*. N.Y. : G.P. Putnam's Sons. 1927.